

● 제9차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

비영리의 씨앗, 자립의 꽃: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민간 비영리 조직의 역할**

비영리의 씨앗, 자립의 꽃: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민간 비영리 조직의 역할

일시 2023년 6월 29일(목) 14:00-16:00

장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그린아고라(어린이재단 빌딩 지하1층)

주최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주관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프로그램 개요 및 세부 일정

사회 이영주 연구파트장(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시 간	식 순	
14:00 ~ 14:15	개회사	정진경 부소장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축 사	김미숙 소장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환영사	김누리 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축 사	고금란 부원장 (아동권리보장원)
14:15 ~ 14:30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자립을 향해	정선옥 교수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14:30 ~ 15:30	희망디딤돌 사업의 성과와 과제	김소영 연구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자립준비청년의 자조모임 경험에 관한 포토보이스 : 가정위탁보호를 중심으로	홍나미 교수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당사자성 : 아름다운재단 “열여덟어른” 캠페인을 중심으로	김성식 매니저 (아름다운재단 청년사업파트)
15:30 ~ 15:35	휴식	
15:35 ~ 16:00	종합토크/질의응답	



나눔지식네트워크란?

‘나눔지식 네트워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가
나눔지식을 교류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조직한 네트워크입니다.

각 기관의 연구 경험과 지식 교류를 통해 나눔지식의
사회적 임팩트(social impact)를 강화하고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목 차

기조발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자립을 향해	07
1. 희망디딤돌 사업의 성과와 과제	19
2. 자립준비청년의 자조모임 경험에 관한 포토보이스 : 가정위탁보호를 중심으로	29
3.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당사자성 : 아름다운재단 '열여덟어른' 캠페인을 중심으로	51

기관소개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인사말

나눔지식네트워크는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그리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가 함께하는 비영리 연구소 네트워크입니다. 비영리조직이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 속에 민간 연구소의 네트워크는 9년째 활동을 지속하면서 서로에게 든든한 지지자로, 비영리 영역에 중요한 아젠다를 제시하고 변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제9차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민간 비영리 조직의 역할'을 주제로 합니다. 보호자에게 양육받지 못하는 아동, 청소년의 문제와 이들의 자립을 위한 지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지만, 최근과 같은 집중적인 관심과 정책의 변화는 드물었습니다. 이러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정책 변화는 오랜시간 비영리조직에서 수행한 크고 작은 사업과 시민들과 소통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럼은 세 기관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을 소개함으로써 통합적, 당사자적 접근의 의미와 효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전선에서 아동정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계신 아동권리보장원 고금란 부원장님, 본 포럼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주제와 관련해 열정적으로 연구하시고,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선욱 교수님, 포럼을 위해 기관의 사례를 나누어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김소영 연구위원님,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나미 교수님, 그리고 아름다운재단 청년사업파트 김성식 매니저님께 감사말씀 전합니다. 코로나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올해는 온라인과 함께 현장에서도 참가자들을 만나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정진경** 부소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김누리** 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김미숙** 소장



기조발제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자립을 향해

정선욱

덕성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자립을 향해

정 선 욱
(덕성여대 사회복지학전공)

*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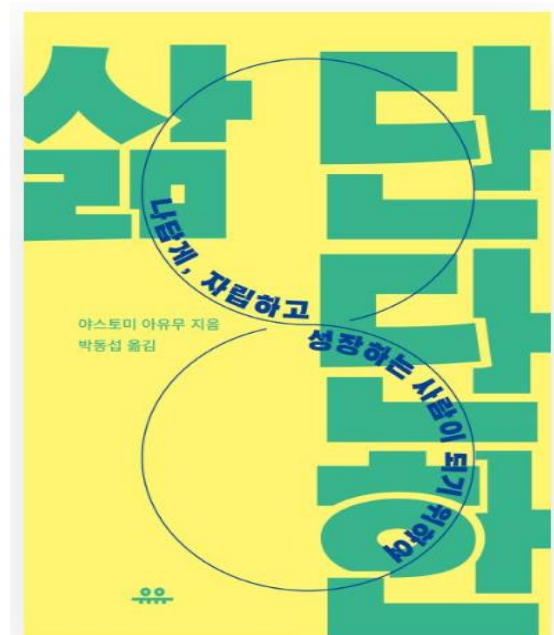
- 호명을 넘어 인정으로
-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 좀 더, 다르게 해야 하는 일은!

1. 호명을 넘어 인정으로

- 아름다운 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등이 보호종료 아동을 “보이지 않는 개인”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호명되는 과정을 만들어냄.
- 앞으로의 방향: 호명은 넘어 인정(recognition)으로
- 인정이론: 자립준비청년, care leaver의 삶(transition 과정에 있는 삶)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많이 활용됨(Glynn, 2021)
- Care - leaving에 대한 신행 이론들은 care leaver의 개인적 경험, care leaver의 사회 환경을 각기 따로 나눠왔음. 이 양자를 통합하는 접근으로 인정이론이 많이 언급됨(Glynn, 2021)
- 인정이론은 아동복지, leaving care 문헌에서 급증하는 주제임(Glynn, 2021)

1. 호명을 넘어 인정으로

- 인정이론은 “인간 상호작용의 기초”로서 상호 의존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개인의 자립(individual self - sufficiency)”에 이의를 제기함.



1. 호명을 넘어 인정으로

- 인정이론의 대표적인 연구자: 악셀 호네트,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
-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에 의하면,
 - “우리가 살아갈 의지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타인에게 인정(사랑, 존중, 가치 부여)을 받는 것 뿐이다“ (EBS, 2022)
- 인정을 **사회 정의** 규칙의 원동력으로 봄 (Houston & Dolan, 2008)
- 인정의 유형: 사랑(love), 존중(respect), 가치 부여(사회적 평가)

1. 호명을 넘어 인정으로

-호네트는 사회학, 심리학, 철학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인정 대상에 접근함.
(Houston & Dolan, 2008)

Table 1: Honneth's three forms of recognition

Forms of recognition	(1) Primary relationships of positive regard	(2) Legal rights	(3) Acknowledgement by the community
Mode of recognition	Providing emotional care through friendship or supportive relationships	Granting and upholding a person's legal rights	Social validation of a person's talents, interests, strengths and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Potential outcomes	Enhanced resilience and self-confidence	Rights can be developed and universalised in law enhancing a person's self-respect	Enhanced self-efficacy and self-esteem
Forms of misrecognition	All forms of abuse: physical, emotional, sexual	Denial of rights and exclusion	Denigration and insult
Threats to self from misrecognition	Threat to physical and emotional integrity	Threat to social integrity	Threat to social standing and dignity amongst peers

1. 호명을 넘어 인정으로

- 정체성 박탈의 경험: "텅 빈 책꽂이처럼, 살갗 없이 뼈만 남는 심정입니다.“(해외입양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박탈당한 기분을 이렇게 표현)
(‘학대·방치·신원위조’ 50년만에 인권침해 고발한 해외입양인들 "우리는 세탁된 상품이 었다"...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9/802298/>)
- 영화 〈아이를 위한 아이〉 대사 중
 - “저 근본 없는 새끼 거둔 내가 잘못이다”
 - “부모님이 이려고 다니는거 아니? 부모 그딴거 없는데요”

1. 호명을 넘어 인정으로

- 낸시 프레이저: 바람직한 사회는 개인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사회의 모든 결정 구조에 참여하여 상호작용을 나눌 수 있는 사회. **동등한 참여**가 분배와 인정을 통합한 정의로운 사회의 지향점 => 바람직한 사회를 판단하는 규범적 기준은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동등하게 사회적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지의 여부**(김기택, 2015)
- 악셀 호네트: 자립준비청년의 존재 인정(=> 사회복지실천에서 관계의 중요성,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의 사회적 인정, 사회정의와 사회복지실천의 현실을 사회적 지지로 연결(Houston & Dolan, 2008)
- 낸시 프레이저: **의사결정구조에 참여**(=> 사회복지실천에서 공동생산의 중요성)

2.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 자립준비청년은 원가정의 보호체계에서 보호 종료(만 18세 퇴소, 연장 종료)한 사람.
- 이전에는 보호종료아동으로 불렸으나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강화방안>에서 만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에게 아동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으로 ‘보호’, ‘지원’이라는 수동적 의미 대신 **능동적 의미를** 사용한 “자립준비청년”으로 용어를 변경(관계부처 합동, 2021)
- 성인은 책임성을 가지고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유민상 외, 2022)
- 자립준비청년: 청년은 청년인데 자립준비청년, 언제까지 준비, labeling 효과 vs 범주가 있어야 ~~ => 자립이행

2.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 2023 자립지원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서식18. 자립지원통합서비스·서약서

[크리]

서약서

- 본인은 20~년 월 일부로 「자립지원·통합서비스」와 「대상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원이 종료됨을 안내받았으며, 「서비스 종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사례관리사(전담인력)의 지도나 협조 요청에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2. 「사례관리를 위한 연락」 시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경우
 3. 「사례관리사」에 대한 위협 또는 폭력 행위를 할 경우
 4. 「이사로 인해 타 지역으로 사례관리를 이관해야 할 경우
 5. 「사례관리 개입 수렴」 시 합의했던 장·단기 목표 달성에 「사례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
 6. 「지원 기간(기본 1년, 최대 5년)」이 만료되었거나 「보호종료 후 5년」이 도래한 경우
 7. 「자립지원통합서비스」에 소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8. 「부정수급, 중복수혜, 목적외 사용」 등 악·상행이 발견될 경우
 9. 기타 사유로 상호 합의 하에 지원을 종료하는 경우

20~년 월 일

서약자 생년월일:~

성명: [고정폭 빈 칸]

[표]

2. 보호종료아동에서 자립준비청년으로?

- 2023 자립지원업무매뉴얼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 시도(17개)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바람개비서포터즈)을 활성화하여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22년 11월 관계부처 합동,
자립준비청년지원보완대책)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3)

서식35. 바람개비서포터즈신청서

성[목숨 빈]	(남.목숨 빈)		생년월일	년월일
주[목숨 빈]				
E-mail		연락처		
보호유형 (기관명)	☐ 아동양육시설 (기관명)	☐ 공동생활가정 (기관명)	☐ 가정위탁 (기관명)	
보호종료여부	☐ 보호연장		☐ 보호종료(년도 보호종료)	
현재 상황 및 소속	☐ 대학 재학/휴학 (ex: "OO대학교" 재학/휴학)		☐ 취업 중 (ex: "군무기관명")	☐ 기타 (구체적으로 기재)
	활동기간	기관명	활동내용	
주요활동경력 (봉사활동 등)				
본인은 바람개비서포터즈 대상자로 '선발될' 경우 열정과 '자부심'을 가지고 '단체 활동'의 '규율'을 '준수하며' 바람개비서포터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20년월일 신청자 (인)				

※ '반드시 한글파일로 작성(프린트 후 수기로 작성 시 인정 불가)
※ '최근 2년 이내' '진학' 및 '사업' 수혜 사항은 모두 작성 바랍니다. (줄 추가 가능)

3. 좀 더 다르게 해야 할 일은!

- 옹호, 역량강화 => 공동생산 과정에서 경험, 강화

3. 좀 더 다르게 해야 할 일은!

Listen for the feelings and actions that embody the emotional, spiritual and psychological elements of power or powerlessness. Jot these down on a piece of paper. Here are examples from workshops.*

Common Responses for "Situations that make you feel Powerful"

- overcoming fear or a feeling of ignorance by pushing myself to take action
- recognition by others of what I did
- finding a creative way to solve a problem that seemed unsolvable
- being able to handle a difficult assignment
- succeeding as a leader
- caring for and helping others
- joining a group with other people who have the same problem
- capacity to inspire fear

Common Responses for "Situations that make you feel Powerless"

- disrespect and putdowns
- being ignored
- being stereotyped and denied opportunities to prove oneself
- lack of control
- loss
- ignorance
- shame
- isolation

**The list combines responses from several countries.*

3. 좀 더 다르게 해야 할 일은!

• CO-PRODUCTION

- 정의: 공동 생산은 이용 주체가 일련의 정책 및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정부 또는 기관,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 진행하는 것을 의미(Evers, 2003; 김미옥·박광옥, 2020에서 재인용)
- ‘경험이 있는 전문가’, ‘자격을 갖춘 전문가’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데 유리한 방식 (McConnell et al., 2019)

3. 좀 더 다르게 해야 할 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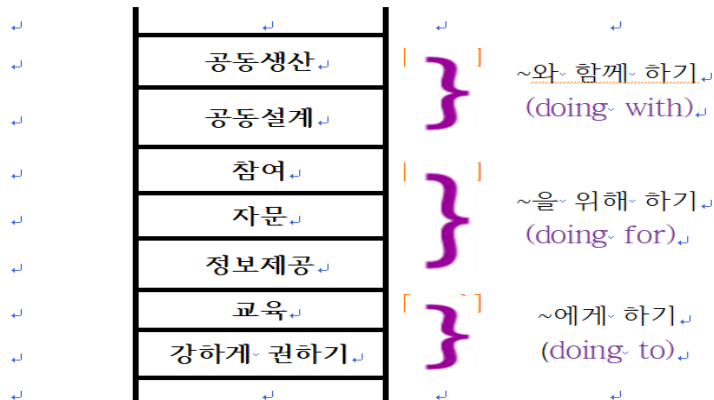
- CO-PRODUCTION (<https://involve.org.uk/resources/methods/co-production>)
 - 특정한 방법이라기 보다는 서비스 설계,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approach)
 - 성공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려면, 이용자의 욕구를 이해해야 하고 설계와 서비스 전달에 이들이 가까이에서 참여해야 함
 - 서비스 이용자를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전통적 관점을 거부
 - 서비스/이용자 관계를 공동 의존(co-dependency), 협력 관계로 재정의함
 - 강점: 공적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통찰력 전문성 활용, 이용자/시민과 전문가/정치인이 동등한 수준으로 협력하여 서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공동 생산 참여자들 간에 기술, 자신감, 열망 형성
 - 약점: 규모가 클 때 관리가 어려움, 참여에 초대받지 못한 이용자에게는 배타적이고 비대표적일 수 있음, 전문가와 참여자 모두 상당한 시간 할애가 요구됨

3. 좀 더 다르게 해야 할 일은!

- 공동 생산은 보호 중(in care) 아동, 보호를 떠난(leaving care) 아동 (care leaver)(이하, 자립준비청년) 영역에서도 공동 생산이 강조됨. 기존의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이들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결정, 전환계획(transitional independent living plan) 수립 등에서 이러한 결정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의 목소리에 집중하기 보다 실천가(전문가) 주도로 이루어졌음(Baker, 2017).

3. 좀 더 다르게 해야 할 일은!

- 공동생산의 수준은 ~에게 하기(doing to), ~을 위해 하기(doing for), ~와 함께 하기(doing with)로 나뉨([그림1]).



[표][그림] 공동생산의 사다리(The ladder of co-production)(SCIE, 2019)

3. 좀 더 다르게 해야 할 일은!

- 이를 자립준비청년과의 관계에 적용하면

첫째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 하는 것(Doing to)으로 이들을 수동적인 수혜자로 보아 강하게 권하고 가르치는 것

둘째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하는 것(Doing for)으로 정보 제공하기, 자문하(구하)기, 참여시키기 등이 해당

마지막은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하는 것(Doing with)으로 동등한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 속에서 공동 설계하고 공동 생산하는 것

3. 좀 더 다르게 해야 할 일은!

- Pre care – in care – after care
- Pre care: 원가정 보호(지역사회 내에서의 삶을 보장)
- In care: Why am I in care? A model for communicating with children about entry to care that promotes psychological safety and adjustment
- After care: 다시 지역사회 속으로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1_).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지원강화 방안』.
- 김기덕(2015). 대안적 비판이론으로서 인정 패러다임의 사회복지적 함의. 한국사회 복지학 67(4), 325-348.
- 박동섭 역(2018). 단단한 삶 나답게, 자립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유유.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2023). 『2023 자립지원업무매뉴얼』.
- 유민상, 신동훈, 신영구,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 방안 연구 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EBS(2022). 위대한 수업 – 악셀 호네트의 인정투쟁(K-MOOC)
- '학대·방치·신원위조' 50년만에 인권침해 고발한 해외입양인들 "우리는 세탁된 상품이었다"…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 신청,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9/802298/>)

참고문헌

- Baker, 2017 Care leavers' views on their transition to adulthood. Coram voice, University of Bristol.
- CO PRODUCTION (<https://involve.org.uk/resources/methods/co-production>)
- Glynn, N.(2021). Understanding care leaver as youth in society: A theoretical framework for studying the transition out of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21.

주제발표

희망디딤돌 사업의 성과와 과제

김소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보호아동의 자립을 위한 점진적 전환

:삼성희망디딤돌사업의 성과와 과제

2023. 6. 29. 나눔지식네트워크
김소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희망디딤돌사업 개요

2015년부터 ‘삼성전자 신경영 임직원
성금’ 240억 으로 희망디딤돌센터
건립과 통합 지원을 추진. 2019년
‘삼성그룹 성금’ 으로 매년 약 50억
규모로 지원 지역 확대 (2023년 현재,
17개 광역 시도 중 12개 지역에 센터 설립
또는 추진 중)

희망디딤돌센터

대상

보호아동 청소년



자립준비청년



프로
그램

자립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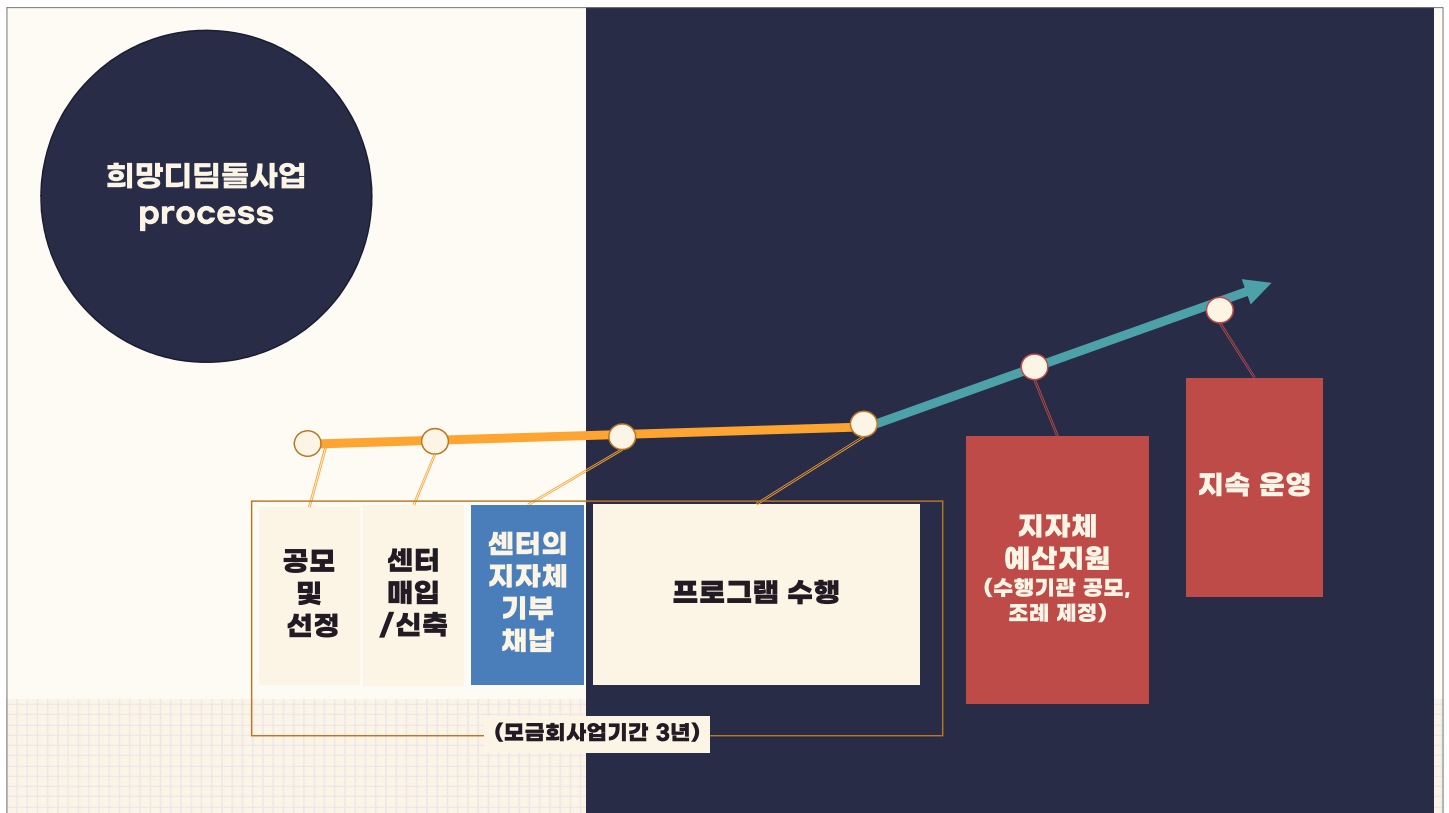
자기이해,
사회적 기술,
진로교육 등
자립교육
프로그램 제공

자립체험

희망디딤돌 센터
에서 자립체험 실시
실제 원룸에서
독립생활 체험
workbook 활동,
1:1 요리코칭 등

자립생활(2년)

입주 후 자립생활
원룸형태의 독립 거주공간
사례관리(자립 목표설정:주거, 재정, 정서,
진로/취업 항목), 심리상담)
요리코칭, 자격증취득, 재무상담
지역사회 LNH전세임대 준비 및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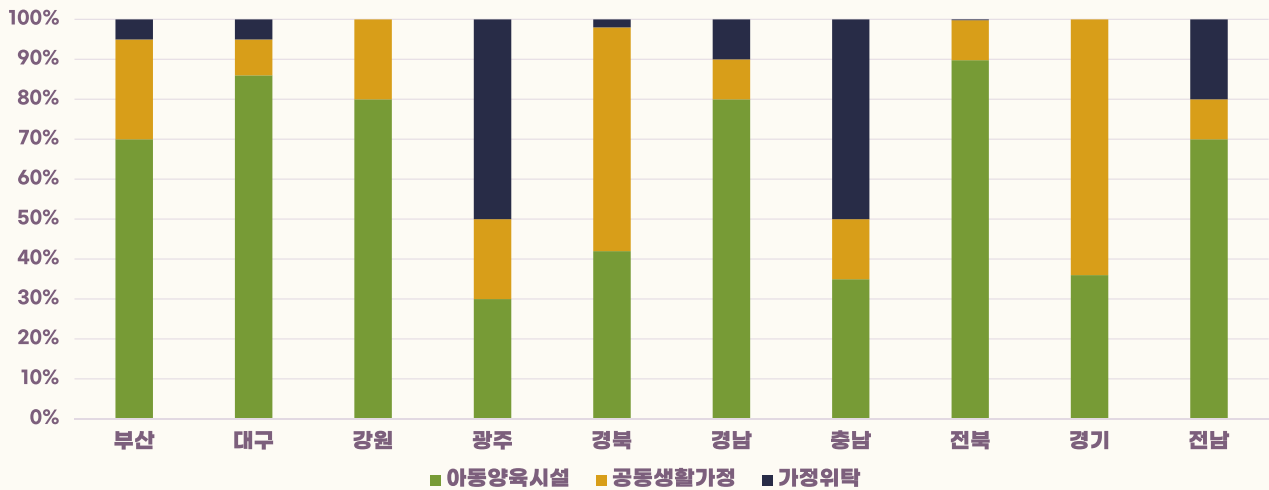


희망디딤돌 사업의 현황 1_센터 현황

센터	건물	규모	개소일	위탁운영기관	종사자 수	자립지원 전담기관 통합운영
부산(진구)*	리모델링7층	생활관10실/체험관12실	2016.09	부산아동복지협회	16	○
대구(중구)*	오피스텔32실	생활관24실/체험관8실	2016.11	대구 YWCA	13	○
강원(원주)	신축4층	생활관30실/체험관2실	2017.02	강원아동복지협회	4	X
광주(서구)*	신축5층	생활관25실/체험관5실	2021.06	광주아동복지협회	11	○
경북(구미)*	오피스텔30실	생활관25실/체험관5실	2022.04	경북아동복지협회	11	○
경남(창원/진주)*	오피스텔30실	창원 생활관23실/창원체험관 3실 진주생활관 7실	2021.06	굿네이버스 경남충무지부	13	○
충남(아산)*	오피스텔26실	생활관 20실/체험관5실/긴급주거1실	2021.06	충남아동복지협회	13	○
전북(전주)	오피스텔26실	생활관 22실/체험관 4실	2021.08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	6	X
경기(화성/고양)	오피스텔23실	화성 생활관 14실/화성체험관 3실 고양 생활관 4실/고양체험관 2실	2021.11	경기복지재단	7	X
전남(순천/목포)*	리모델링 5층	순천 생활관 15실/순천체험관 3실 목포 생활관 15실/목포 체험관 3실	2023.02	전남아동복지협회	11	○
충북(청주)	신축5층 예정	생활관 22실/체험관 3실	2024.2분기예정	충북아동복지협회		
대전(미정)	오피스텔20실	생활관 17실/체험관 3실	2023.11예정	대전아동복지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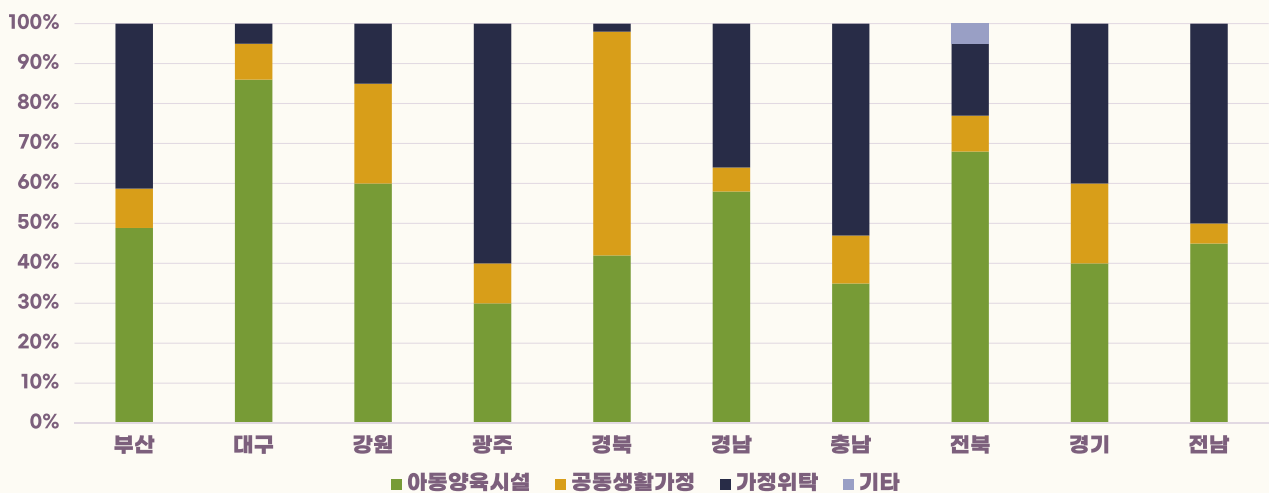
자료 : 정익중 외 (2023) 삼성 보호아동, 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센터운영 현황 분석 및 법률개정 방안.

희망디딤돌 사업 현황 2 서비스제공 대상자인 '보호아동'의 보호유형



자료 : 정익중 외 (2023) 삼성 보호아동, 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센터운영 현황 분석 및 법률개정 방안.

희망디딤돌 사업 현황 2 '자립준비청년'의 입주 전 보호유형



자료 : 정익중 외 (2023) 삼성 보호아동, 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센터운영 현황 분석 및 법률개정 방안.

희망디딤돌 사업 현황 3_ 자립생활 입주청년 현황

센터	청년수 (2022기 준)	집중사례관리 청년(%)	경계선 지능 청년(%)	심리정서지원 청년(%)	입주자 선발 비중**
부산(진구)*	15명	100	0	7	(1)-40%, (2)-40%, (3)-20%
대구(중구)*	35명	100	12.5	61	(1)-40%, (2)-20%, (3)-30%, (4)-10%
강원(원주)	34명	90	10	15	(1)-40%, (2)-20%, (3)-30%, (4)-10%
광주(서구)*	10명	30	0	0	(1)-70%, (2)-20%, (3)-5%, (4)-5%
경북(구미)*	8명	100	0	87.5	(1)-50%, (2)-25%, (3)-25%
경남(창원/진주)*	29명	100	25	40	(1)-50%, (1.5)-20%, (2)-10%, (3)-10%, (4)-10%
충남(아산)*	17명	90	16	22	(1)-40%, (2)-50%, (5)-10%
전북(전주)	22명	100	9	55	(1)-77.5%, (2)-9%, (3)-4.5%, (4)-9%
경기(화성/고양)	20명	100	0	10	(1)-30%, (2)-30%, (3)-30%, (4)-10%
계	190명				

자료 : 정의중 외 (2023) 삼성 보호아동, 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센터운영 현황 분석 및 법률개정 방안.

*는 자립지원전담기관 검무 중

**입주자 선발 우선순위 (1) 자립의지가 강한 자, (1.5)자립을 목적으로 센터 역할이 필요한 자
(2)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 (3)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자 (4)경계선 지능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자 (5)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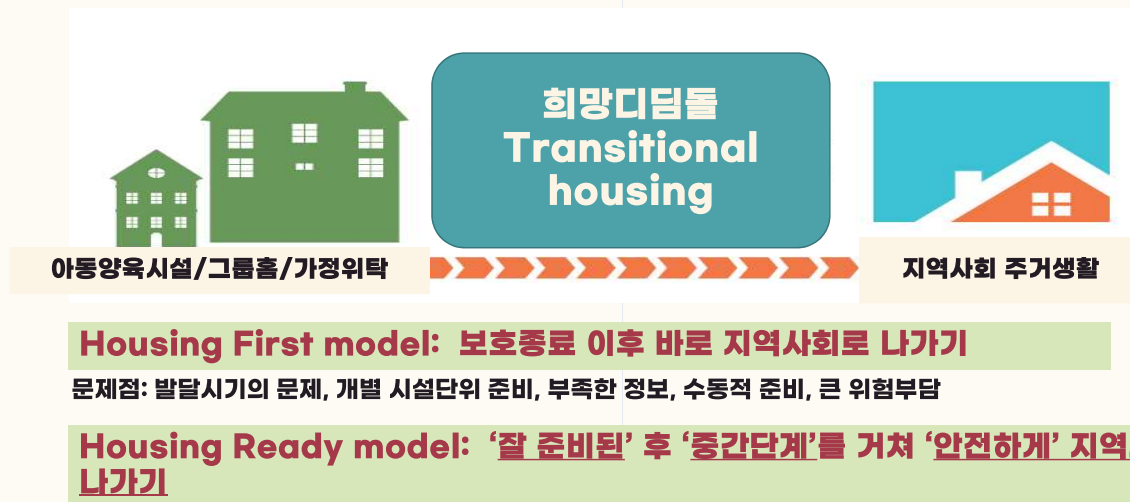


희망디딤돌 사업의 의의/성과

- 사업의 의의
- 사업의 성과

희망디딤돌 사업의 의의

1. 전환 주거 (TRANSITIONAL HOUSING) 모델로서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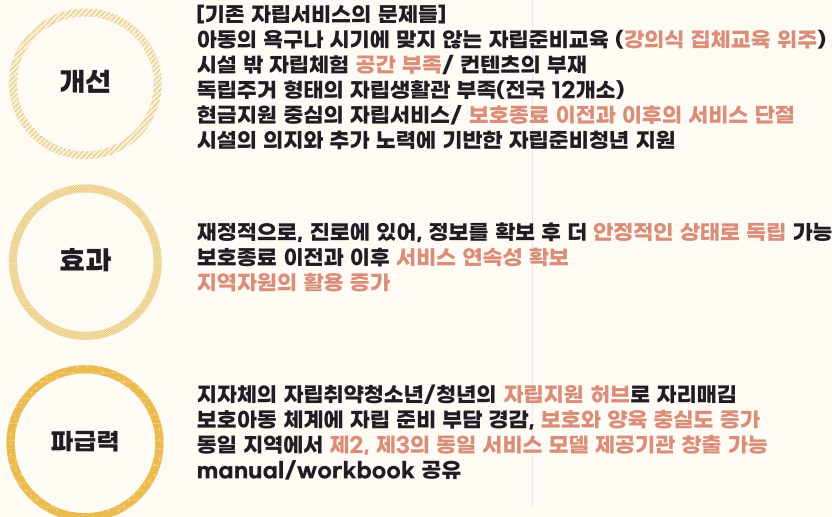
희망디딤돌 사업의 의의

2.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욕구에 부합



희망디딤돌 사업의 의의

3. 기존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효과-파급력



희망디딤돌 사업의 의의

4. 지자체 중심의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거버넌스 모델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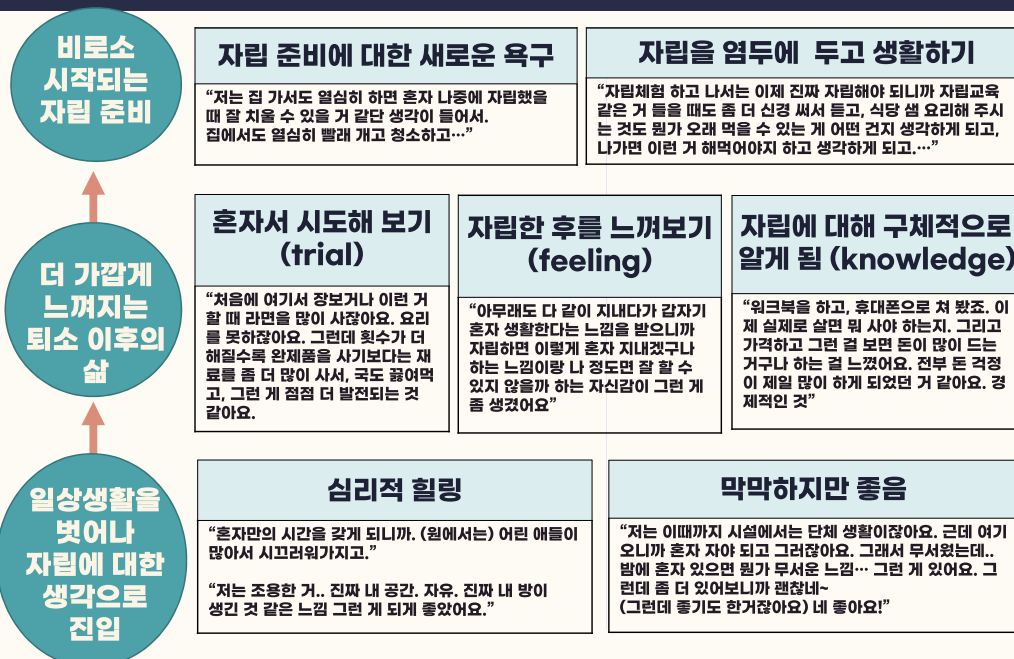


희망디딤돌 사업의 성과_센터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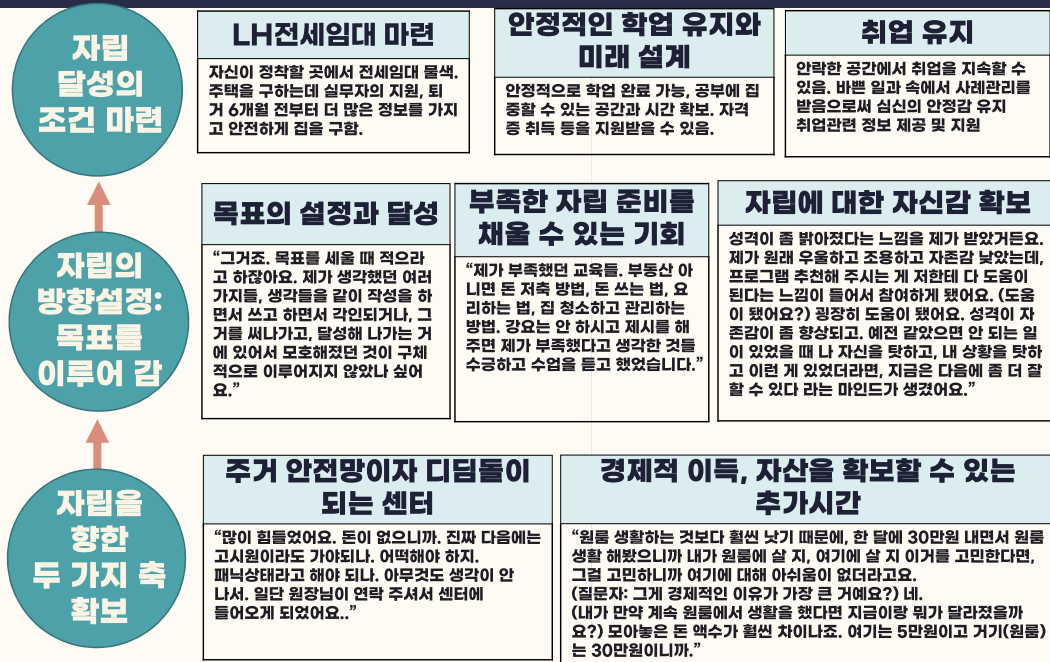
*오피스텔형 별도표기, 미개소(전남, 충북) 센터 제외



희망디딤돌 사업의 성과_자립 역량 강화(자립체험)



희망디딤돌 사업의 성과_자립 역량 강화(자립 생활)



희망디딤돌 사업의 과제

희망디딤돌사업의 과제

- 과제 1. 희망디딤돌사업의 목표와 성과는 무엇인가? /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에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과제 2.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지역에 특화된 모델 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과제 3.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고립 예방과 사회적 관계가 중요함을 각성**
- 과제 4. ‘전환주거+지원서비스’ 모델 지속으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서비스 다양화 역할
- 과제 5. 동일 모델의 복제로 인한 확산, 추가 서비스(ex, 긴급쉼터 등) 탑재 등 다양화 노력

주제발표

자립준비청년의 자조모임 경험에 관한 포토보이스 : 가정위탁보호를 중심으로

홍나미

수원과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자립준비청년의 자조모임에 관한 포토보이스 연구 - 가정위탁보호를 중심으로 -



홍나미, 박주혜, 강현주

목 차

- I.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II. 연구방법
- III.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경험
- IV. 결론 및 제언

I.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연구배경

- 「보호종료아동 자립 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주거생활·교육·취업, 자산 형성과 관련된 지원과 함께 심리·정서·사회적 관계 지원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음(관계부처합동, 2021).
- 일반 청년에 비해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관련 지표 낮게 나타남. 일반청년보다 삶의 만족도 낮고, 자살생각 비율 높은 것으로 보고됨.
- 보호종료 후 3~4년 차에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고 자살생각 경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됨(이상정, 2021)
- 아동이 보호체계에 있을 때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의미있는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 또한 길러져야 하는 것이 중요함(정정호, 좌현숙, 김지선, 2021)

연구목적

- 다수의 연구에서 자립 의지와 자립역량 강화의 긍정적 요인 중 하나로 사회적 지지를 확인하고, 심리·정서적 지원방안으로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속하여 강조 됨(권지성 외, 2021; 박주혜, 홍나미, 강현주, 2020; 이상정 외, 2021, 정선욱 외, 2019)
- 보호대상 및 보호종료 아동의 심리정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및 서비스 방안으로 자조모임 참여가 정서적 지지와 성장을 자극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함(정정호, 좌현숙, 김지선, 2021)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이 참여하는 자조모임이 어떻게 구축되고, 참여 경험과 참여 경험에 따른 변화는 어떠한지 입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지지체계인 자조모임의 의미와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연구방법

포토보이스

- 포토보이스는 참여자들이 연구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집단 안에서 논의할 사진을 선정한 뒤, 사진의 이미지가 내포한 의미, 선택한 사진에 담긴 경험과 감정을 드러냄으로써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참여적 행동 연구방법임(Wang & Burris, 1997; Li, Wang, Wu, Zhang, et al, 2001)
- 포토보이스를 통해 소외된 사람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지역사회에 기록되고, 참여자들은 사진의 주제를 토론하고 성찰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음. 더 나아가, 정책 입안자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참여자들의 조건을 개선하고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함
- 말로 표현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자신의 경험을 사진으로 포착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환경에 처한 대상자들에게 유연하게 활용되고 있음(서청희, 김경미, 2017; 강선경, 최윤, 2021; 홍나미, 정익중, 2022; Povee et al., 2014)

연구참여자 일반적 특성

구분	유형	성별	연령	위탁서비스유형	현재상황	참여 기간
A	친인척위탁	여	21	보호연장	대학재학	2년1개월
B	대리위탁	여	22	보호연장	대학재학	2개월
C	대리위탁	여	20	보호연장	대학재학	2년1개월
D	대리위탁	여	20	보호연장	고졸/아르바이트	2년1개월
E	대리위탁	여	23	보호종료	대학휴학	3년4개월
F	대리위탁	여	27	보호종료	프리랜서	3년4개월
G	친인척위탁	남	27	보호종료	직장	3년4개월

포토보이스 진행 과정

회기	주제	진행내용
1	오리엔테이션	연구목적 및 프로그램 안내 사진 촬영 유의 사항 전달
2~4	집단 토의	회기별 주제 선정 회기별 주제에 따른 사진 내용 발표 및 집단 토의
5	사진 전시회 준비	포토보이스 결과물 검토 및 사진 전시회 준비 역할 분담
6	사진 전시회	사진 전시회를 통한 사회적 활동 및 피드백

Ⅲ.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경험

연구결과 범주화 3개 상위 범주, 8개 하위 범주, 20개 주제 도출

상위범주	하위범주	소주제
보호종료 후 상황	보호종료의 현실을 마주함	• 보호종료(연장) 아동 임을 알게 됨 • 지금의 처지를 수차례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
	자립에 대한 불안으로 막막함	• 어디로 가야할지 갈피를 잡지 못함 • 미래에 대한 조바심으로 자신을 몰아침
자조모임 참여 경험	자조모임에 연결되어 소속감을 느낌	• 낯선 마음으로 자조모임에 들어섬 • 구성원의 환대를 통해 점차 익숙해 짐 •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받아들여짐
	서로에게 지지적 환경이 되어 줌	• 정서적 환기가 일어나며 위로 받음 •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생겨 든든함
	유용한 자립 정보 팁을 나눔	• 경험이 응축된 자립 정보를 공유함 • 우리에게 적합한 실생활 정보를 교환함
	자립에 대한 긴장을 내려놓고 재충전함	• 시간을 내어 특별한 여유를 느낌 • 질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함
	자립역량을 차근차근 쌓아 감	• 힘을 내어 나를 살핌 • 비슷한 환경에서 열심히 도전하는 구성원을 보며 동기부여받음 • 역경을 피하지 않고 직면함
자조모임에 대한 기대	함께 서는 자립이 되기를 바램	• 더 많은 우리가 동행하길 바램 • 정서적 지지에 기반함 • 자립준비청년의 목소리를 냄 • 담당 선생님과 연결되기를 희망함

#1. 보호종료 후 상황

보호 종결의 형식이 없었던 가정위탁 연구참여자들은 보호 종료에 관한 정보를 접하면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자신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불안해 했고, 지원을 받기 위해 자기 처지를 계속 설명하는 과정 앞에 위축되기도 하였다.

#1. 보호종료 후 상황

1) 보호종료의 현실을 마주함

(1) 보호종료(연장)아동임을 알게 됨



[텡]

보호 종료되고 나서 힘들기만 했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 주셨지만,
할머니에게도 온전히 마음을 터놓지 못했고,
할머니는 치매로 결국 요양원에 가시게 되셨고,
저는 혼자가 됐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연락이 없으시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울렸어요.
저의 텡 빈 모습.
(참여자 E)

#1. 보호종료 후 상황

1) 보호종료의 현실을 마주함

(2) 지금의 처지를 수차례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



[영수증]

전기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금액을 보면, 0원이 찍혀 있어요.
제가 아직 수급자 상태라서 수급자 전기세 감면을 신청하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데,
워낙 쓴 게 없다 보니 그냥 감면되어 0원이 나왔어요.
저걸 보면, 제가 아직은 스스로 서지 못하고 있다. 누군가의 도움을 아직은 받고 있구나 (참여자 G)

#1. 보호종료 후 상황

2) 자립에 대한 불안감으로 막막함

(1)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함

어디까지 올라가야 할지 모르겠고,
어디까지 내려가야 할지 모르겠고,
약간 제 감정도 그렇고 지금 하는 것도 그렇고.
갈피가 잡히지 않는, 얼마나 올라왔는지,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연구참여자 A)



[끝이 보이지 않는 계단]

#1. 보호종료 후 상황

2) 자립에 대한 불안감으로 막막함

(1)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함

저의 출근길 지하철 모습이에요.
출근길이다 보니 줄을 계속 서 있더라구요.
근데 사실 자립, 제가 보호종료가 2년 차인데
아직도 저 스스로 자립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제대로 출발도 하지 못한 딱 그런 상태인 같아서
저 사진을 찍었어요 (연구참여자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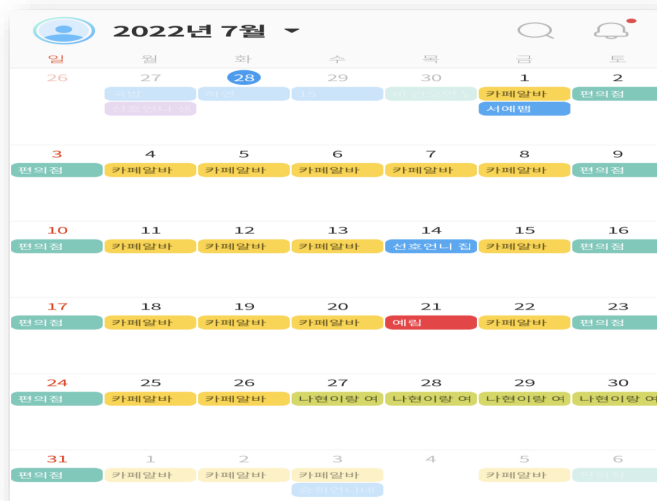


[출발을 기다리는 줄]

#1. 보호종료 후 상황

2) 자립에 대한 불안감으로 막막함

(2) 미래에 대한 조바심으로 자신을 몰아침



[빡빡한 일정표]

다른 친구들은 어머니,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이 0원으로 시작해야 하잖아요.
일단 고정된 스케줄만 적어 놓은 거거든요.
좀 바쁘게 살아가야 하니까.
방학이니까 돈을 벌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연구참여자 C)

#2. 자조모임 참여 경험

자조모임에 참여하면서 연구참여자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변화하고 있었다.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소속감을 느꼈고,
의지할 곳이 필요했던 마음을 기대며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적인 환경이 되어주었다.
검색되지 않는 유용한 자립 정보를 나누었고,
시간을 내어 참여한 자조모임을 통해 특별한 여유를 누리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립 역량을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었다.

#2. 자조모임 참여 경험

1) 자조모임에 연결되어 소속감을 느낌

(1) 낯선 마음으로 자조모임에 들어섬



[한 사람의 손길]

처음 자조모임에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낯설고 그림자 같이 느껴졌어요.
처음 여기 들어올 때 그런 심정이었던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의 손길로 인해 이 모임에 잘 적응하게 되고 더 나오고 싶어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연구참여자 A)

#2. 자조모임 참여 경험

1) 자조모임에 연결되어 소속감을 느낌

(2) 구성원의 환대를 통해 점차 익숙해 짐



[새로운 인연]

일단 가겠다고 했지만, 뭔가 되게 걱정했어요. 친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서 앉아 있다가 오는 거 아닐까 했는데, C가 불임성 있게 대해줘서 진짜 재밌게 있다 왔어요.
앞으로 자조모임 계속하니까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더 행복한... (연구참여자 B)

#2. 자조모임 참여 경험

2) 서로에게 지지적 환경이 되어 줌

(1) 있는 그대로 내 모습이 받아들여짐



[힐링]

저는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 얘기만 계속 자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다른 애들한테는 엄마, 아빠 얘기를 일부러 할 때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오늘 할머니가 닭백숙 해주기도 했다, 그냥 다 말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B)

#2. 자조모임 참여 경험

2) 서로에게 지지적 환경이 되어 줌

(2) 정서적 환기가 일어나며 위로 받음

나쁜 공기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처럼 제 머릿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걸러주는 느낌.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걱정을 엄청 많이 하고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 걱정이 많은데,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되게 이런 생각은 정말 쓸모 없구나! 생각이 정리되고 지지 받는 느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A)



[나쁜 생각을 걸러주는 공기청정기]

#2. 자조모임 참여 경험

2) 서로에게 지지적 환경이 되어 줌

(2) 정서적 환기가 일어나며 위로 받음

자조모임 자체가
저희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는 거라고 보니
평소에 다른 데서 하지 못했던 말을 이쪽에서는 자주 하는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갖고 있던 고민을 여기서는 쉽게 털어놓아요.
그래서 막혀 있는 거를 뚫어준다는 느낌으로 저 사진을 찍었어요.
(연구참여자 G)



[막힌 속을 뚫어주는 약]

#2. 자조모임 참여 경험

2) 서로에게 지지적 환경이 되어 줌

(3) 나를 잡아주는 사람이 생겨 든든함



[관계]

빨리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얘기를 하면서 뭔가 그런 게 철 없는 생각이었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상황도 안되는 데,
그런 거를 많이 알아보면서 제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저를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C)

#2. 자조모임 참여 경험

3) 유용한 자립 정보 팁을 나눔

(1) 경험이 응축된 자립 정보를 공유함

자조모임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좀 더 포커스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돼요.
인터넷을 찾으면 포괄적인 정보가 나오거든요.
사실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전세 임대는 거기보다 좀 더 좁은 형태고 받을 수 있는 것도 더 많거든요.
여기서 얘기 나누면서 정보 찾기가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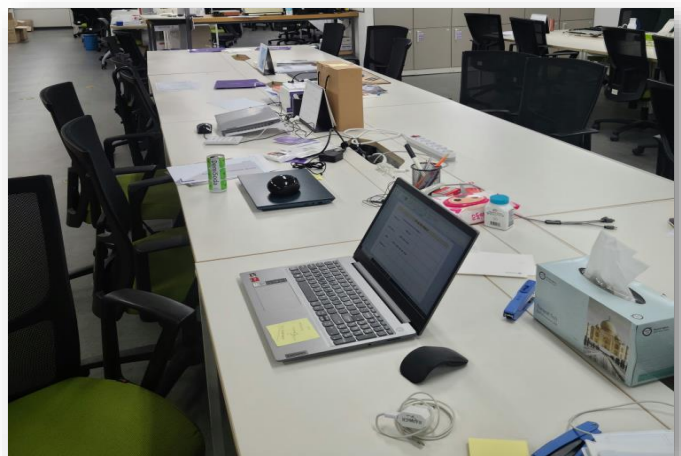
[포커스된 정보]

#2. 자조모임 참여 경험

3) 유용한 자립 정보 팁을 나눔

(2) 우리에게 적합한 실생활 정보를 교환함

제가 원래는 받을 수 있는 혜택, 그런 거 안 알아봤어요.
알려줘도 귀찮아서 안 했을 때가 많거든요.
이제는 제가 어느 순간부터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시에서 교통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하니까
신청하라고 말해줬어요.
(연구참여자 B)



[포커스된 정보]

#2. 자조모임 참여 경험

4) 자립에 대한 긴장을 내려놓고 재충전함

(1) 시간을 내어 특별한 여유를 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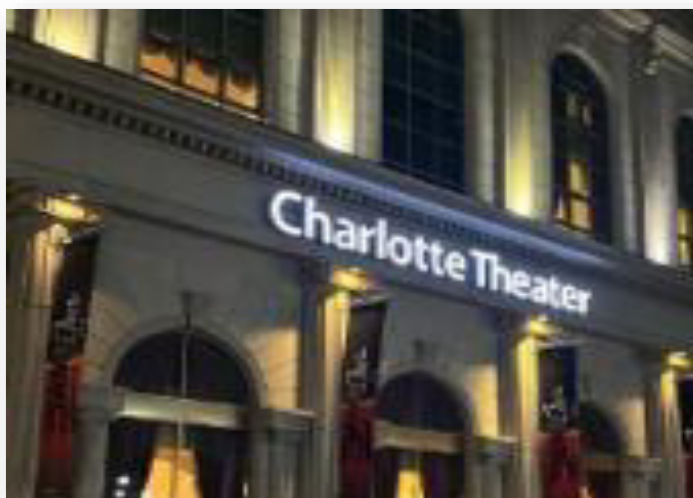
[휴식]

자조모임 하기 전에는 딱히 연락하는 사람들도 없고, 주변 일에 치이고 일하고 집에 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여유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자조모임 하면서 그래도 좀 사람들 만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 보니까 좀 더 여유를 챙기는 것 같더라고요. (참여자 G)

#2. 자조모임 참여 경험

4) 자립에 대한 긴장을 내려놓고 재충전함

(2) 질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함



[평소 못해 본 경험]

제가 처음 뮤지컬을 봤을 때의 사진이에요. 사실 뮤지컬 비용이 조금 부담 되잖아요. 자조모임을 통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C)

#2. 자조모임 참여 경험 5) 자립역량을 차근차근 쌓아 감

(1) 힘을 내어 나를 살핌



카페에서 찍은 거울 사진이에요.
자조모임에 참여하기 전에는 자신에게 혹독하고 안 돌봤어요. 지금은
제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힘들다든지 우울하다든지 불편한 감정을 무시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듣고 인정하려고 해요 (참여자 A)

[거울 속의 나]

#2. 자조모임 참여 경험 5) 자립역량을 차근차근 쌓아 감

(2) 비슷한 환경에서 열심히 도전하는 구성원을 보며 동기부여 받음



길 가다가 바위 쪽에 피어 있어서 찍었는데,
여기가 사실 꽃이 자라나기 힘든 곳 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조모임에 참석하는 언니, 오빠들이 정책 활동 같은 걸 해내고,
하는 활동들이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선배들이
바위틈에서도 곳곳이 피어나는 민들레와 닮았다고 느꼈어요.
(연구참여자 E)

[민들레]

#2. 자조모임 참여 경험 5) 자립역량을 차근차근 쌓아 감

(3) 역경을 피하지 않고 직면함



[다시 올라가기]

자조모임 다니면서 뭔가 되게 많은 일이 바뀌었어요.
인생에서 소나기가 오면 앞으로 나아갈 생각은 안하고, 어떡하지 하고 맞고만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아물 길 기다렸어요.
이제는 이 상태로 있으면 안 되겠다. 더 나아 가야겠다 해서 이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제가 된 것 같아서 (연구참여자 B)

#3. 자조모임에 대한 기대

연구참여자들에게 자립준비의 시간은 여전히 힘들고 버겁지만
자조모임을 통해 견고하게 나아갈 힘을 얻고 있었다.
자조모임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동료, 후배들에게 좀 더 안전하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믿었고
더 많은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서기를 희망하였다.

#3. 자조모임에 대한 기대

1) 함께 서는 자립이 되기를 바램

(1) 더 많은 우리가 동행하길 원함

자조모임에 참여해서 활동하기까지 부담 갖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함께 서로 으쌰 으쌰 하면서 세상에 목소리를 내고,
좀 더 나은 세상 속으로 같이 살아 나가자는 표현으로
(연구참여자 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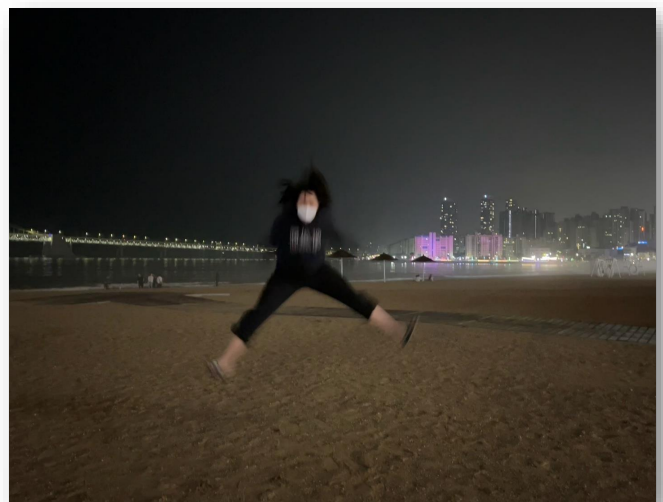
[한 걸음씩 천천히]

#3. 자조모임에 대한 기대

1) 함께 서는 자립이 되기를 바램

(2) 정서적 지지에 기반함

남자친구랑 여행 갔을 때 광안대교 보면서 찍었어요.
남자친구랑 있어도 많이 웃는데,
여기(자조모임)에 나오면 더 많이 웃는 것 같아요.
태양처럼 환하게, 밝게.
(연구참여자 D)



[태양처럼 밝게]

#3. 자조모임에 대한 기대

1) 함께 서는 자립이 되기를 바램

(3) 자립준비청년의 목소리를 냄



[청년들의 자립 이야기]

다른 친구들에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우리는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차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막 1인 시위 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자조모임이 생긴 거로 생각 해요. 다 같이 목소리를 내니까 바로 전달이 되더라고요(연구참여자 F)

#3. 자조모임에 대한 기대

1) 함께 서는 자립이 되기를 바램

(4) 담당 선생님과 끈끈한 연결이 필요함



[의지하는 곰돌이]

저희에게 선생님은 (자조모임) 언니들 같은 구성원인 것 같아요. 저희 모임에서 함께 즐기고, 친구 같은 선생님이어서 더 편하게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지할 수 있는 곰돌이처럼. (연구참여자 C)

Ⅳ. 결론 및 제언

자조모임의 의미

- 삶의 긴장을 내려놓고 쉬었다 갈 수 있는 시간이자 안전한 공간
- 기대 이상의 위로와 유익한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직면하는 힘을 얻음
- 자립지원 선생님들 ‘믿을 만한 어른’으로 의지
- 정부의 대책 발표에서 아쉬움을 드러내왔던 공식적, 제도적 자립 지원의 한계를 보완 기대
- 긴 시간의 자립과정에서 자조모임은 지속적이고 건강한 ‘관계의 자본’ & 공식적 제도를 보완해줄 수 있는 ‘비공식 자립 지원’

자조모임 결성과 발전적 확산 위한 제언

-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결성과 초기에 담당자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투입
- 또래 간 정서적 지지의 태도를 세우는 것을 우선
- 다양한 질 높은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_ 심리적 여유
- 보호 유형, 연령 등에서 자조모임 구성원의 동질감 확보
- 보호기간 중 청소년 시기부터 지지모임에 참여하도록 독려
- 자조모임 운영을 위한 제반 환경 제원 필요
- 예산과 프로그램 지원

연구의 한계

- 초기단계에서 자조모임 본연의 특성보다 지지집단으로서 특성이 섞여 있어 명칭 사용에 조심스러운 측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자조모임으로 통용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조모임 특성이 더 많은 비중 차지
- 가정위탁아동의 자조모임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해당 보호 유형 자조모임이 갖는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함. 향후 타 보호 유형 자조모임과 비교 검토를 통해 보호 유형별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모색



고맙습니다

주제발표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당사자성 : 아름다운재단 '열여덟어른' 캠페인을 중심으로

김성식

아름다운재단 청년사업파트

열여덟 어른 캠페인

당사자성의 의미

2019년 열여덟 어른을
만났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대신 얘기를 하면 공감이 될까?

왜 이들은 숨어야만 하는가?

‘당사자’

‘보통의 청춘’



만 18세,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하는 이들
열여덟 **어른**

당사자
스토리텔러
캠페이너
주체자

과연 있을까?
정말 있을까?

이름
얼굴

“나는 자립준비청년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캠페인
열여덟 어른

나는
열여덟 어른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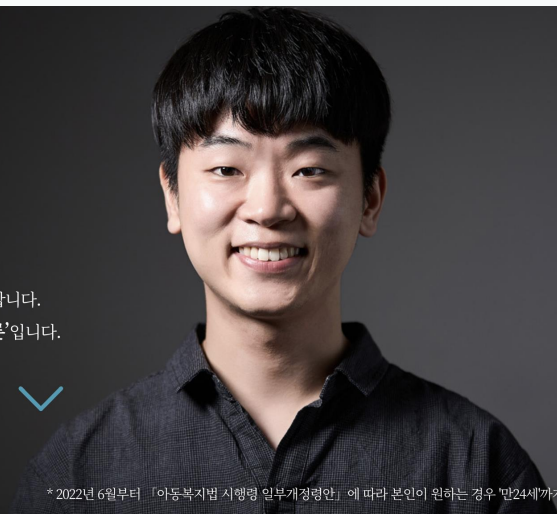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을 나와 자립정착금 500만원으로 자립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열여덟 어른’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우리들은 편견과 동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꿈을 찾고 있는 보통의 청년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 2022년 6월부터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경우 '만24세'까지 보호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어준 용기



빈곤포르노

의도적이고 가학적인 동정심 유도



13명의 캠페이너와 17개의 당사자 프로젝트



'원' 배지



팟캐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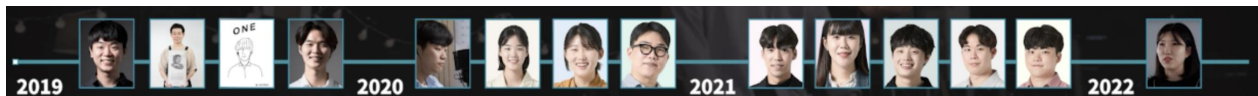
일러스트&굿즈



음원 제작



일흔 파도타기



당사자 인터뷰



연극 '열여덟 어른'



미디어 고아 이미지



동화책



명규 버스킹



김군자 블렌드



보육원 방문 교육



런웨이 가방



자립100day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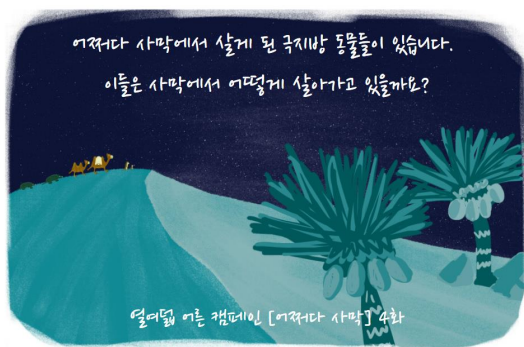
안연주 프로젝트

[동화책] 나의 어린, 고래에게



주경민 프로젝트

[일러스트] 어쩌다 사막



글/그림 _ 열여덟 어른 주경민



손자영 프로젝트

[미디어 속 '고아' 캐릭터] 미디어 패러디 일러스트



“고아 XX라더니” 대사 논란된 드라마...제작진 사과 요구 빚발

f t y n 0

일찍: 2020-03-02 17:



가장 많이!

- 1 '장영' 박수
- 2 장남 노
- 3 '올리언
- 4 발인거
- 5 '15개

손자영 프로젝트

[미디어] 패러디 일러스트



손자영 프로젝트

[미디어] 패러디 일러스트

난 근본없는 아이가 아니야
나는 가능성이 큰 뿌리 깊은 나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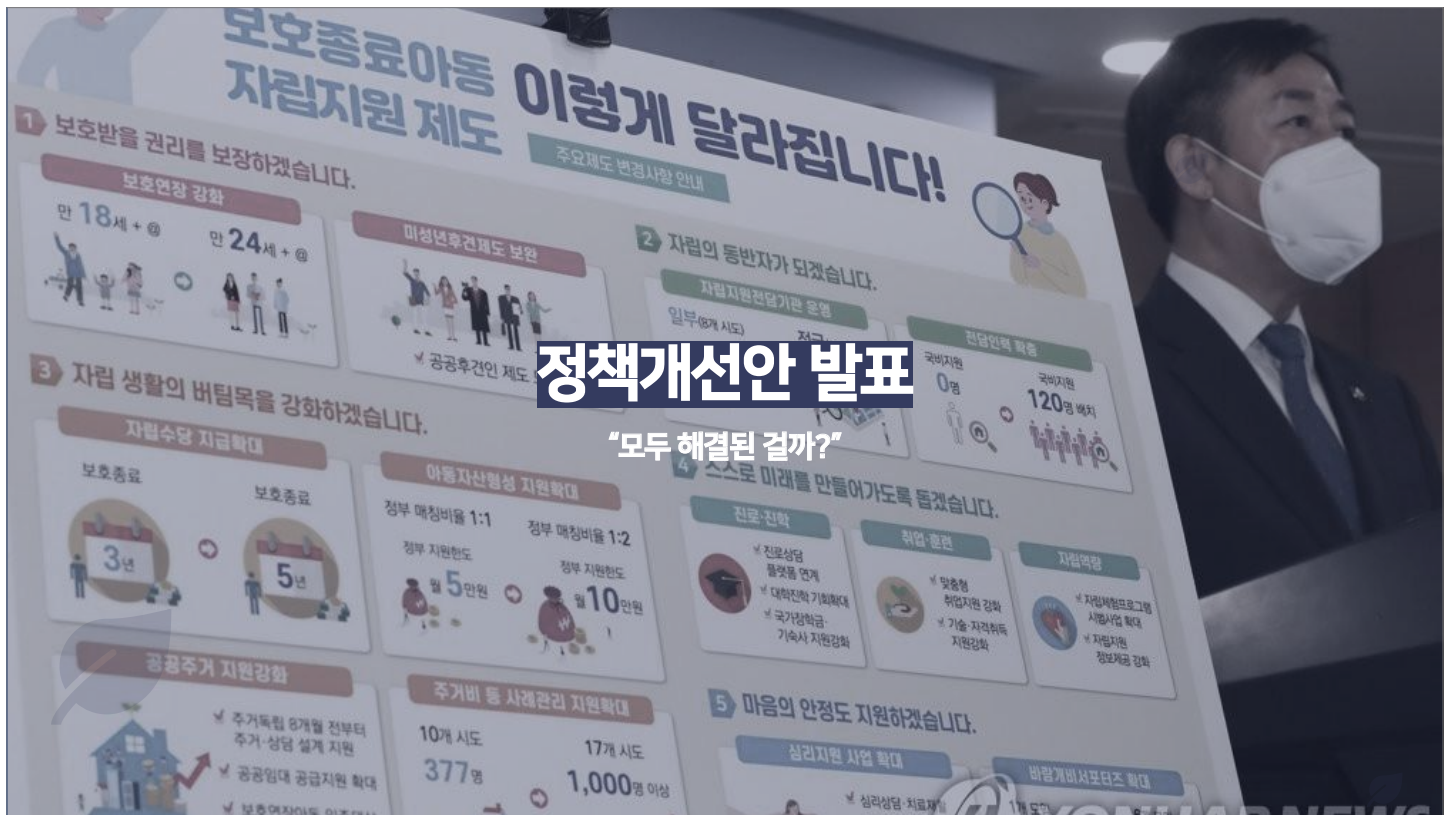




제31회 소비자가 선택한 좋은 광고상 수상
2022 앤어워드 이벤트/캠페인 부문 WINNER 수상



2023 소비자가 선택한 좋은 광고상



■ 지난 여름, 광주에서 들려온 슬픈 소식

무엇이 문제일까

- 쏟아지는 언론 기사
계속 되는 인터뷰 요청
당황한 관계자들

당사자 관점

자립준비청년 문제는 특히나 어렵더라

■ 불쌍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

■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삶

■ 자립이라는 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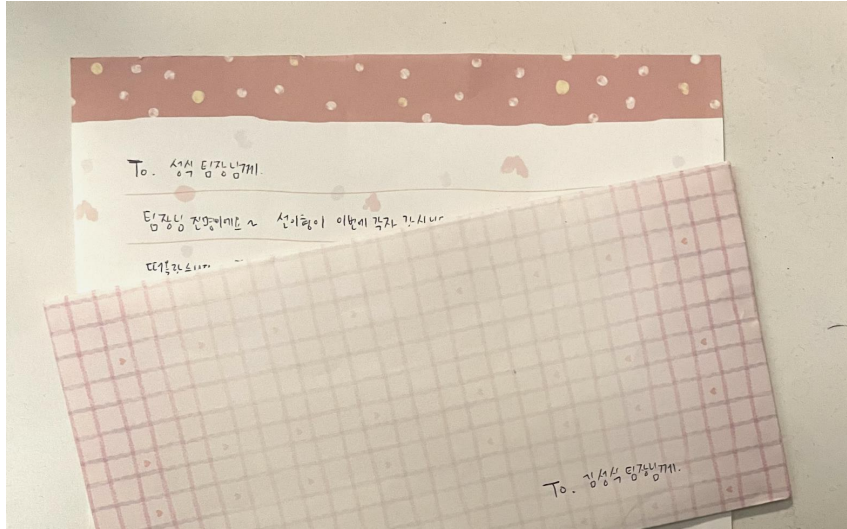
열여덟 어른 캠페이너 의미

우리는 오늘도 자립하고 있습니다.

열여덟 어른 캠페인 시즌3를 시작합니다.

[자세히 보기](#)





**“저를 더 사랑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때의 저를 더 안아주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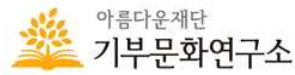
마지막 과제

감사합니다



기관소개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2001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기부문화연구소입니다.

우리 사회에 건전한 기부문화를 뿌리내리고 효과적인 기부와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연구 조사를 수행합니다. 또한 글로벌 연구 파트너로 참여하여 글로벌 스탠다드를 학습함과 동시에 한국의 현황과 좋은 사례를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빙코리아

2001년 시작된 기빙코리아는 기부 행동과 인식을 조사하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부지수입니다. 2015년까지는 개인기부조사와 기업기부조사를, 2016년 개편 이후에는 비영리기관조사와 개인기부조사를 격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세 번째로 역사가 오래된 기빙코리아는 기부참여율, 평균기부금액, 기부처, 기부 방법 등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기부지수 산출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통계인 사회조사 내에 기부 문항이 추가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실무자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의 분석 결과와 원데이터를 공개하고, 발표 행사를 개최합니다.



기획연구

기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비영리기관의 모금능력 향상 및 효과적인 정책생산을 위해 필요한 연구를 기획하여 수행합니다. 고액 및 자산기부,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기부 연구 시리즈”와 법제도 개선연구를 통해 관련 정책변화를 건언해 왔습니다.

비영리 투명성 강화, 법제도 현실화 및 기술변화에 따른 비영리 대응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기획연구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연구

기부문화연구소는 국내외 연구소와 협력하여 국제기부지수, 아시아 공익활동환경지수를 생산하는 데 협력하고 있습니다.



나눔박스

기부문화에 관한 도서를 꾸준히 펴내고 보급함으로써 우리나라 비영리 종사자와 기부자에게 기부문화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여 국내 비영리 부문의 역량 강화와 기부문화 발전의 초석으로서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나눔문화연구소는 2005년 설립되어 나눔문화 성숙을 위해
기부와 나눔, 사회 변화, 임팩트를 탐구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서
나눔지식의 허브를 지향합니다.

나눔문화연구소가 하는 일



나눔문화연구/출간

- 조사연구보고서 간행
- 나눔총서 발간
- 나눔문화연구소
기획포럼



나눔연구 지식 확산

- 나눔지식네트워크
공동기획포럼/세미나
- 유관학회 공동주최



나눔연구 생태계 조성

- 비영리 콜로키움
- 사랑의열매 학술연구
지원사업

나눔문화연구소 주요 연구

- 기부 트렌드 연구
- 한국형 나눔지수 연구
- 지역 배분외제 개발 / 평가설계 / 성과평가 연구
- 나눔토대연구 - 한국의 나눔 / 시대별 사례 연구
- 사랑의열매 나눔사업 Social Impact 측정지표 개발 연구
- 기부에 관한 국가 비교 연구 등

나눔문화연구소 블로그 www.nanumresearch.or.kr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2011년 설립된 아동 NGO 최초의 연구소입니다.
아동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조사 실시, 아동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를 선도하는
아동복지포럼 개최 등 아동옹호활동을 위한 다양한 근거자료를 생산해오고 있습니다.

연구소 연차

13년

연구원

6명

연구보고서

151건

연구조사

아동이 행복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조사 실시, 아동관련 전문가들과 협업하며
아동정책개선 및 인식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적 연구물 생산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행복지수, 국내외 아동 이슈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어린이재단 사업 성과연구, 이슈리서치, 연구지원사업

네트워크

아동이슈와 관련한 논의의 장 마련을 위한 연2회의 아동복지포럼, 나눔문화확산에 기여를
위한 나눔지식네트워크, 연구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자문위원회, 복지 및 모금 관련
이슈 이해 및 실천가능대안 논의를 위한 초록우산 세미나

정기간행물

1957년 창간하여 아동복지실천현장과 학계 전문가의 연구물을 공유하는 동광(童光),
아동관련 통계를 모아 아동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 아동지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서울 중구 무교로20 어린이재단빌딩 8층/ 02-775-9122(내선 0131~0134)

홈페이지: <http://www.childfund.or.kr>

